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도사례

- 동남아권 중심 -

오 경 식 | 신문대학교 교류협력팀장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 거주 여건을 확보하여 수학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우수한 학생들은 학부과정에서부터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 연간 무역흑자의 절반 가까운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임에도 우리 대학들은 국내의 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개방은 이제 세계적 추세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제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를 대학 운영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좀 더 공격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으로 좋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 해도 실제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상품은 지속적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교육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적 교육역량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국을 알고 협조할 수 있는 친한(親韓)·지한(知韓) 인력의 양성은 국제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강화는 물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외국인 학생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같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선문대학교의 외국인 학생유치와 지도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외국인 학생 유치의 현황

외국인 학생은 크게 정규과정 학생과 비정규과정 학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규과정 학생은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통해 정규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이고, 비정규과정 학생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의 경우처럼 비 학위과정 학생을 일컫는다.

본교에는 2004년 2학기 현재 대학원에 78명, 학부 317명 등 정규과정에 395명, 한국어교육원(한국어연수생) 286명, 교환학생 13명 등 비정규과정에 299명으로 모두 694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본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교 부설 한국어교

육원에 입학하는 한국어 연수생이다. 본교 한국어교육원은 지난 1989년 설립되어 매년 약 250여 명의 학생이 수학과 있으며, 이들 중 100여 명의 학생들이 본교 학부과정으로 입학한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원은 본교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가장 튼튼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유학박람회와 공인된 유학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고 있다. 본교는 금년 5월 북경에서 열린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여 학교를 홍보하고, 관련 유학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학생 유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 번째로 1999년 본교가 주창하여 창립된 아시아대학연합(Asia University Federa-

tion: AUF)과 자매대학을 통한 교환학생과 대학원생 유치이다. 자매대학에서 추천하는 교환학생들은 매년 10~20명이 본교에서 수학과 있는데 주로 한국어와 영어 원어강좌로 한국의 문화와 철학 등 한국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또한 본교 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해외 유학생 유치단을 동남아의 중점 지역에 파견하여 자매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석사, 박사과정 학생을 유치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으로 좋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 해도 실제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상품은 지속적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 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교 정규과정 또는 한국어교육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유학생들은 본교의 효과적인 홍보요원이자 유학 상담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동문으로 관리함으로써 친지, 동료 등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유학생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수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교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본, 중국, 네팔,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꾸준히 한국어 연수생을 추천하는 등 학생유치에 협조하고 있다.

Ⅲ. 외국인 학생 유치의 문제점

1. 대학 당국의 홍보부족과 의지결여

우리의 대학은 바야흐로 입학정원과 수험생의 역조시대로 접어들었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대학의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학의 입학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유치 경쟁은 주로 국내시장에 집중되어 있었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관심과 의지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국외에서의 유학박람회 참가나 자료제공 등 홍보활동에도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사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해도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대학은 이제 국내시장에서 눈을 밖으로 돌리고 이를 실천할 전문 인력 보강과 국제화 의식 고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체제 및 프로그램의 취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원어 강좌, 한국어 강좌, IT 강좌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대학의 프로그램은 주로 정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과정, 단기연수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쉬운 실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비 부담은 유학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나 장학제도는 극히 미비하여, 동남아 지역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학금 수혜 기회가 많은 일본이나 대만 등을 유학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 동남아에 대한 인식 부족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와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유학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언어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 극복을 위하여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그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저개발국이라는 편견과 함께 미비하고 단편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세계화의 무대에서 이들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을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에게 세계적 기준을 이해시키고 글로벌마인드와 이를 실천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에서 2000년 현재 6천명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10년에는 5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정책전환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식전환과 비자발급과 출입국관련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IV. 외국인 학생 지도 사례

본교는 국제화 특성화의 대학교육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지식, 국제화의 자질 그리고 참다운 인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본교는 '3+1유학제도'로 대표되는 '세계로 나가는 국제화'와 함께 본교 '쌍방향 국제화'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오는 국제화'의 특성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교의 기본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시스템은 유학 전 사전교육, 유학 중 학업 및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졸업 후

사후지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1. 행정제도 및 서비스체제 개선

1)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보강

본교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외협력과를 교류협력실로 강화하였고, 2002년 교류협력처로 확대 개편하고 담당인력도

1999년 2명에서 2001년 이후 5명으로 보강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학생 개인별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매학기 1회 이상의무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사관리, 비자 및 체류자격, 진학, 학내생활 등 전반적인 유학생생활 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의 경우 전공별로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지만, 언어 문제로 효과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

다. 이를 위해 영어 혹은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유학생생활의 적응을 돕고 있으며,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전담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 관련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과 업무협조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2) 오리엔테이션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먼저 본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입국하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이메일이나 전송을 통해 송

국내 대학의 프로그램은 주로 정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과정, 단기연수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쉬운 실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비 부담은 유학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교의 기본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시스템은 유학 전 사전교육, 유학 중 학업 및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졸업 후 사후지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부해 주고, 입국 당일에는 공항마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서비스는 한국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본교는 물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후 유학 생활에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입국하는 시기에 맞추어 대학버스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재학생 도우미가 안내를 하거나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대학생활 안내서 (International Students Handbook)'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공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수시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시 해당국가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자국어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주로 한국어교육원생과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과 본교 학생을 1:1로 연결시켜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상호 언어교환 학습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 직원, 유학생간 자매결연을 통해 원활한 유학생 생활이 되도록 돕고, 교직원외의 국제화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교내 국제화 특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며 홈스테이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기숙사 및 편의시설 확충

2004년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인 국제학생관을 신축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 전원을 수용하고 있다. 이 곳에는 간이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유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기숙사 세미나실에서 영화

감상 등 외국인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모임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국제라운지(I-Lounge)를 확보하여 외국인 학생의 모임과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확보를 통하여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세미나 및 모임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지난 8월 주한 네팔인 유학생회의 창립 모임이 본교에서 열린 바 있다.

4) 장학제도 보완 및 보험 가입

외국인 학생 대부분이 자비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열악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학생들에게는 학비 부담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부업을 하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교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0%를 감면하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는 기숙사비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은 소비가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고 있다.

5) 국제 유학생회 지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국제 유학생회(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를 조직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학교 축제

둘째 날을 '유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날은 국제 유학생회 소개와 자매대학 기념품 전시, 유학생과 총장과의 만남의 시간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학생이 주축이 된 학생동아리를 통한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지원하고 있다.

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1) 한국어 강좌 및 한국학 원어강좌 개설

본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1년 과정의 한국어 연수과정을 거쳐 학부과정에 입학하고 있으나 입학 초기에는 어학 문제로 수업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학기 5개 이상의 '한국학 영어 원어강좌 (Korean & Inter-Cultural Studies Program)'를 개설하고 있는데 2001년 이래 연인원 400여 명이 수강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매학기 6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2) 간담회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학기별로 종강 전에 총장, 교류협력처장, 담

당교수 및 직원, 학생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실시하고 학기별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학기 수시로 실시되는 한국문화 축제와 유적지 방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현장 프로그램은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수업과는 또 다른 학습효과가 있으며, 유학생들 사이의 친목도모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맺는 말


외국인 학생 유치와 지도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본교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선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 학생

을 위한 기숙사 등 거주 여건을 확보하여 수학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연수과정과 외국어 원어강좌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유학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의 배치와 지속적 교육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외국인 학생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유학·연수의 수지적자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친한·지한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 유치는 국민의 국제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학만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학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강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유학생 유치실적과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대학 평가의 지표로 삼아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유학생의 비자발급과 출입국 관련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대학당국에서도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의 기준과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

외국인 학생 유치는 국민의 국제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학만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유학·연수의 수지적자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친한·지한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동남아지역에 대한 문화적, 인종적 편견의 불식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더불어 사는 생활 문화를 형성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세계화 무대의 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을 버리면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후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상호간의 신뢰가 견고해지고 함께 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오경식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선문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장, 입학홍보처 학생선발팀장을 거쳐 현재 교류협력처 교류협력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NGO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